

한복, 그 자체가 아름다움

지난해 말 할리우드 톱스타 니컬러스 케이지가 한국을 방문, 기자회견에서 한복에 반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또 한류열풍으로 일본, 중국인 등 관광객이 한복 입기 체험을 통해 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한복에 대한 찬사가 이곳 저곳에서 일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한복의 소중함과 그 아름다움에 감동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한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글 편집실 사진 김도형

잔주름마저도 우아한 멋 풍겨

한복은 한국인들이 오랜 기간 착용해 온 한국의 전통 복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복은 한국인의 얼굴이며, 한복에는 한국인들의 사상과 미의식이 그대로 배어있다고 할 수 있다. 평면으로 재단하여 입으면서 입체적인 성격이 부각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한복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지만 크기에 여유가 있어, 어떤 체형의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잘 맞는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풍성한 형태미를 지닌 한복은 유동적인 선을 미적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두루마기나 바지, 치마 등은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혹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 흔들리는 유연함이 미적인 특징이 된다.

또 백의라는 인상이 강한 의복으로 백색은 백의민족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한민족이 애호해 온 색인데, 가공하지 않은 소재 자체의 색을 의미하는 소재(素色)로 불리며 한복의 멋을 더하고 있다. 반면 원색대비의 극치를

보이는 색동도 화사하고 밝은 이미지를 선호한 한국인들의 미적 정서에서 등장, 그 아름다움을 뽑낸다.

색 뿐만 아니라 단순한 한복에 멋과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선의 아름다움이다. 저고리의 안깃과 겹깃이 이루는 V자형 선이나 추녀의 곡선과 같이 하늘을 향한 배래선, 뽀족한 버선코는 귀여우면서도 온화한 미를 돋보이게 한다. 치마 허리부터 아랫쪽으로 퍼져 내려가는 은은한 라인은 서양의 드레스와는 분명 다른 차별을 느낄 수 있으며 치마의 잔주름마저도 우아한 멋을 낸다. 남자 한복은 데님으로 묶은 바짓부리의 선으로 남성적인 강인함을 표현, 맵시를 한껏 풍긴다.

옷을 감싸는 방식, 감싸 조이는 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멋을 낼 수 있는 한복은 멋과 함께 경제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손질과 관리만 잘 해주면 양장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입을 수 있으며 유행에도 민감하지 않은 디자인이다.

경제적, 편안함 갖춘 의복

이와 같은 아름다움과 경제적인 면을 지닌 한복은 우리네 조상들의 풍류와 맛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의복이다.

하지만 최근 한복을 입는 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명절에나 입는 '예복' 수준을 지나 이젠 명절에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입지 않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평상시 입지 않은 의상이라는 점 때문에 가히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멋과 조상들의 지혜를 설명해 주며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주지 않는다면 이제 자라는 아이들은 한복을 마치 결혼식장에서 평생 한 번 입는 웨딩드레스 정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이젠 예복이라는 축소된 영향을 발휘하는 한복에서 나아가 생활복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아름다운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도 함께 인식해 간다면

한복은 더 이상 장롱 속 깊은 곳에 숨어 잠자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한복의 활성화를 위해 경남 진주시가 세계 5개국에 참여하는 2005년 제 5회 세계의상 페스티벌'유치에 성공, 100년 전통 진주 실크 산업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한복의 우

수성을 널리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들이 더욱 확대되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복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다.

이번 설날에는 잠자고 있는 한복을 꺼내 입고 가족들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n



장소협찬 성시내

